

길 없는 산의 문없는 절 '피안의 정토'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래기행
(10) 능가산 내소사

전나무 숲·건축 등 탁월한 생태안목 다양한 수종, 조류 어울린 '명승지'



●능가산내소사
'울라기나무' (위)
'직박구리' (아래)



능가산 내소사 변산(邊山)을 두고 일찍이 격암(格庵)은 기근과 병란이 없는 십승지(十勝地)라고 했다. <동국여지승람>은 '천부(天府)라고 까지 하였다. 옛 사람들은 전설을 만들어 '신선들이 사는 이상향'이라 자칭했고, '생거변산(生居邊山) 사거순창(死居淳昌)'이라는 속담까지 낳았다. 그러나, '능가산(楞伽山)'이라는 말만큼 변산의 이상성을 확연히 드러낸 말은 아직 없다. 그 누구도 능히 그곳에 이르기 어렵다는 '능가산'! 하지만, 길 없는 능가산에 문도 없이 늘 열려 있는 내소사가 있으니 이 또한 신묘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내소사 일주문 앞에 느티나무가 늙었다. 살펴보니 알오면 그냥 지나치기 십상인 자리에 7백년을 넘게 살아온 역사의 산 증인이다. 요즘도 스님들과 마을사람들이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일주문을 지나면 전나무숲이 바다(溟海)를 이루고 있다. 분명 사람 손으로 심은 것일지라도 손댈 수 없을만큼 천연덕스럽다. 무위자연을 보여준 옛 스님들의 손길은 새삼스럽고도 놀랍다. 나무는 생육조건이 맞아떨어져야 잘 크는 법이다. 전나무는 소나무와 달리 습한 곳을 좋아하는 음수(陰樹)다. 습한 자리를 골라서 전나무숲을 앉힌 옛 스님들의 생태적 안목에 또한번 놀란다. 이 전나무숲의 식물은 대략 5백여 그루, 모두가 150년 전후의 수령들이다. 같은 침엽수라도 전나무는 소나무에 비해 성질이 수더분해서 자기 그늘아래 다른 나무들이 들어오는 것을 잘도 눈감아준다. 조릿대가 등성등성한 숲바닥에는 짝살나무, 두릅나무, 뽕나무, 비목, 까치박달, 나도밤나무, 팔배나무, 쪽동백, 질레, 개뿔나무, 때죽나무 등등이 고만고만한 키들을 재고 있다.

사천왕문의 담장은 마물 위에 기와와 황토로 쪼개어 쌓은 토담이다. 낮아서 더욱 단아한 토담은 천길 전나무숲을 지나오는 동안 팽팽해진 긴장감을 시각적으로 풀어준다. 기와와 황토를 쪼개어 쌓아 색깔 또한 부드럽다. 이것이 생태조경이다. 천왕문 옆에 방지(方池)가 자리하고 있다. 전통조경에서 우리 연못은 네모꼴의 방지가 기본이었다. 건봉사, 개심사, 선암사, 청평사 등지에 남아있는 옛 연못의 모습들이 다 그러하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동안 사찰 경내 연못들이 전통을 잃고 일본식으로 많이 변형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사천왕문을 지나면 느티나무 당산목 가까이 3백년 묵은 달피나무가 함께 늙었다. 간혹 이 나무를 '보리수로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근래 나온 <내소사지(來蘇寺誌)>에도 '다르타가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은 나무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 나무가 인도의 그보리수(Ficus religiosa)는 아

변산, 최근 5년 용도변경 구실로 숲훼손 13만평

니다. 아는 사람이야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 알게 되므로 고치는 것이 낫다. 내소사의 옛 해우소는 근래 다시 지은 것이지만, 다락식 중층 구조는 옛 모습에 충실하다. 변조간 뒤편의 대숲이 너무 무성해서 변조간의 채광과 환기에 장애가 되고 있다. 조금 베어내서 햇볕과 공기가 드나들 수 있게 하면 덤으로 작업공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내소사의 누문은 봉래루이다. 몸집은 크지만, 기교와 장식을 거부해 선방의 노승처럼 소박한 건물이다. 어느 절이나 원래 누문 밑을 지나 대웅전에 이르도록 동선이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절에서는 친절하게도(?) 옆에 따로 돌계단을 두는 바람에 모두들 누문을 비켜 다니고 있다. 동선은 가람배치나 사찰조경에 있어서 핏줄과도 같아서 편의위주로 동선을 바꾸면 아름다움이 반감된다. 설선당은 보기 드문 생태건축물이다. 높은 지대의 설선당과 낮은 지대의 요사채가 만나서 절묘한 모자형 구조를 만들었다. 평지가 아닌 경사지에다 땅을 훼손하지 않고 절묘하게 앉힌 것이다. 낮은 요사채를 중층구조로 올려서 지붕까지 수평으로 맞추었다. 막돌을 주춧돌로 놓고 그 위에

구불구불한 자연목을 그랭이질로 절묘하게 앉힌 것도 서양건축물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생태성이다.

대웅보전 내부는 그대로가 피안의 정토다. 웅봉이 낮고,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온갖 꽃비가 내린다. 전설에 따르면, 대웅보전 벽화와 단청들은 모두 황금빛 새가 그렸다고 한다. 이런 저런 내용을 미루어보면 그 황금새는 아무래도 피피리일 가능성이 크다. 황금새를 툴 피피리는 산속 활엽수에 동지를 틀고사는 여름철새다. 여름이면 내소사 숲에서도 볼 수 있다. 청련암으로 가는 숲길은 산새들의 마을이다. 직박구리가 감나무 꼭대기에 달려 있는 흥시 몇 알에 정신이 팔려 사람이 지나가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직박구리는 중부지역 이남에서 흔히 관찰되는 텃새이다. 목소리도 색깔도 그리 아름답지 못하면서도 친근함을 주는 것은 인적 끊어진 외진 산속이 아닌 마을숲에 머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산을 도로 내려가서 월명암을 찾아간다. 아가 지나온 전나무숲에서 시작되는 등산로가 관음봉-직소폭포-월명암으로 이어져 있다. 관음봉에 이르면 골짜기 아래로



◇이호신작 '능가산 내소사' (163.5×405) 1999년.

내소사가 편안히 내려다 보인다. 예전에는 관음봉을 '수리봉'이라고 했다. 수리는 매나 솔개(鷹)를 가리키는 같은 말이다. 솔개의 옛말은 '솔애'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소사의 옛 이름인 '소래사'가 '솔애 절=솔개절'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직소폭포를 지나 호수 숲길은 전형적인 솔숲길이다. 줄기도 미끈하고, 가지들도 늘씬하게 뻗어있다. 게다가 수피가 얇아서 솔모가 많은 홍송이다. 고려조에는 이곳 소나무로 궁재(宮材)와 조선재(造船材)를 삼았다고 한다. 그 종자들이 지금도 울울창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다. 따로 변산송(邊山松)이라 이름 붙여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형질이 우수하다. 그러나, 부설겨사(浮雪居士)가 창건했다는 월명암 옛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다. 육당이 순례할 당시 월명암은 선방 신축 불사를 하느라 주변의 산림을 많이 훼손한 듯하다. 육당은 '털귀한 노인'의 머리카락 같음이 몹시 애달프다고 적고 있다. 지금 월명암의 모습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월명암에서 매표소가 있는 남녀 치까지의 그리 가파르지 않다. 군데군데 소나무 군락이 있으나, 주종은 활엽수들이다. 가막살나무, 고로쇠, 뽕나무, 까치박달, 쇠물푸레, 굴피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털팽나무, 산딸나무, 팔배나무, 사람주나무... 등등이 활엽의 화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나무도 이 숲의 주인으로 잘난 체 나서지 않는 나무들의 해방구이다. 이 가운데 흔치 않는 나무로는 굴피나무가 있다. 이름 때문에 굴참나무와 자주 헷갈리는 나무이다. 굴참나무 수피를 흔히 '굴피'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산간가옥인 굴피집은 굴피나무가 아니라 굴참나무 수피를 벗겨서 지은 집이다. 굴피나무는 수피는 얇고, 세로 무늬가 나 있어서 굴참나무와 크게 다르다. 예전에는 이 나무의 열매에서 검은색을 얻어서 옷을 염색하는 데 썼다고 한다.

쌍선봉(459)은 남여치로 내려가는 갈림길에 있다. 쌍선봉 정상에 서면 건너편으로 변산 최고봉인 의상봉(508)이 우뚝하고, 발 아래로 부안호가 푸르다. 그러나, 내려다보는 눈이 마냥 호쾌한 것만은 아니다. 최근 5년동안 '용도변경'이라는 미명으로 훼손된 국내 국립공원 숲 면적이 35만5천평이나 되고, 그 가운데 용도변경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곳 변산이기 때문이다. 택지개발과 도로 신설을 위한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숲이 무려 13만평이나 된다.

글 · 사진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